



“
낮은 자세로
한 발 더 뛰며
소통하겠습니다

김미랑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이 되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빠름이 유수와 같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의원,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민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으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행복한 3년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낮은 자세로 한 발 더 뛰며 소통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시 정책에 반드시 적용해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은 전파력과 생명력이 짧아”

지난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개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Universal:보편적) 디자인은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회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유니버설사고는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에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생소한 문화 운동일 수 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개인의 삶의 환경, 사회 구조적, 법제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정책과 복지 정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강릉도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KTX가 개통되면서 국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과 관광 거점도시 사업 등 사업 대부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이 강릉의 자연생태 및 관광 도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강릉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은 주요 대도시로부터 거리도 멀고, 인구 규모도 작고, 산업기반도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 연장선

에서 강릉시 관광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개발과 지역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집약적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콘텐츠는 그 전파력이 약하며 생명력도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이 누구나 편하게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절하게 디자인된 관광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도 경제성장이 수반한 도시 성장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대도시에는 도심 인구감소, 중소도시에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지역거점 도시인 강릉의 쇠퇴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강남 지역의 변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강릉에 외국인 집단감염사태로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戰禍爲福)이라는 네 글자를 새기며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강릉시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
시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품고
일하겠습니다

정광민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제11대 의회 후반기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도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한다고 자부하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강릉의 자산을 물려주는 ‘미래 먹거리’ 사업은 희망 만드는 일
‘청년 지원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된 것...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강릉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강릉시 주민자치 발전포럼’에 토론자로 나서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은 강릉의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강릉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강릉이 ‘천천히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강릉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그리고 인문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힐링하기 좋은 도시이면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죠. 강릉을 찾는 여행객과 강릉에서 사는 주민이 누려야 할 자산입니다. 이를 통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강릉시의회에 최초로 의원 연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연구회인지요?

의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의원이 한 두 가지의 전문적 식견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회를 만든 것입니다. 의원 연구회가 처음 운영되다 보니 조금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지리라 봅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강릉시가 제정한 조례가 개정된 상위법에 맞는지, 혹은 시대 흐름과 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또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강릉시가 제정한 법률적 근거인 조례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제·개정하는 일을 연구합니다.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
인가요?

저는 청년이 강릉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10년 정도 지속해서 투자해야 그나마 청년들이 강릉에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생각하게 되었고, 청년 담당 부서 신설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에는 강릉에 사는 청년의 실태조사와 욕구 조사, 청년센터 설치, 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주택 및 복지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도 규정하여 강릉에 사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19 상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사업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강릉시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릉시의 취약한 구조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방역 활동의 일선에 계신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강릉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021. 5. 17.~5. 28. / 12일간)



강릉시의회는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신재결 의원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 찾기 범시민운동을 제안하며’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 보고’와 ‘민간 공원 조성(교동7공원, 교동2공원) 특례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광민 의원이 발의하는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진용 의원이 발의하는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출 안건에 관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강희문 의장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최근 부동산 상황도 수도권 자금 유입으로 과열되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 앱 ‘일단 시켜’로 도시락을 주문해 점심을 먹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1년 5월 17일)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제자리 찾기 범시민운동 제안



신재결 의원

강릉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의 ‘강릉 제자리 찾기 범시민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환수를 통하여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문화도시 강릉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갑시다.

첫째, 먼저 강릉시의회 차원에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귀환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강릉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를 총망라하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환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 찾기’를 위한 강릉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 10만 강릉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일정 확정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처리했다. 이날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문진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시민의 불안감과 경제위축이 점점 더해져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꾸준한 소통과 업무연찬으로 동해안 잠재력 최대한 발휘”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출범했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동해안 지역 상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이 참여했다.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5월 29일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동해고속도로, 양양공항, 동해항을 비롯하여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등 동해안 지역에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물류·여객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

선될 전망이다 만큼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동해안 지역이 상생발전 하는 기회를 얻는 전환점을 맞자”라고 의기투합했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이 추대됐다. 강희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라며 “6개 시·군 의장협의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소통과 업무연찬을 통해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동해안 권역이 국토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릉에서 정기총회 개최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3일 강릉시의회에서 열렸다. 강릉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는 이정훈 협의회장의 개회사,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과 김한근 강릉시장의 환영사, 주요 안전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강희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확정된 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강원형 순환교통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큰 희망을 봤다”라며 “회기

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북방경제 시대의 전진기지로 변모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을 위한 건의문 ▲동해안~신(新) 가평 간 송전선로 사업 관련 성명서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사업 정상화를 위한 환경부 재 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강원도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등 총 4건의 안전을 채택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철회 촉구(4.19)



CKU 지역 문화관광 포럼 개최(4.26)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4.27)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참여(5.3)